

상호의존성에 주목하며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하루히코 구로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세계 경제성장을 달성함에 있어 핵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G20 국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서로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를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첫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빈곤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2005년 기준으로 9억 3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인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G8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를 모두 더한 것보다도 많은 인구이다.¹ 빈곤의 만연으로 인해 이 지역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의 식량 위기에 대단히 취약했으며 2008년도에 추가적으로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게 된 1억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영양상태, 산모 및 아동 보건에 관련된 빈곤 지표는 이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아동 중 1/4를 약간 넘는 수가 저체중이지만 남아시아에서는 저체중 아동의 비율이 46%나 된다.²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자의 34%, 산모 사망자의 40% 이상, 신생아 사망자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시간마다 전 세계에서는 45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¹ UNFPA. 2008. 2008년 세계인구 현황. 뉴욕.

² ADB. 2006. 2006년 중요 지표: 보건 및 교육 정책 실효성 평가. 마닐라.

6 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 현재의 세계적 경기둔화 이전에도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는 의미이다. 장래를 보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더욱 빠르고 깊이 있으며 광범위하게 발전하지 않는 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모순적이지만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성장의 속도와 양상을 회복함에 있어 점점 더 아시아의 역동성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가 최근의 경기후퇴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건전하고 신중한 금융정책,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 경쟁력과 생산성을 겸비한 산업, 높은 저축률과 투자액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국제 시장 및 자본이 열려 있고 공정하며, 공공 및 개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는 장래 새로워진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아시아는 향후 경제성장의 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성장한다면 2030년에는 전세계 탄소배출량 중 40%가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어 전세계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다. 아시아는 환경 보전에 대한 투자 이외에도 보건, 생계, 기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호 정책, 취약 지역을 위한 인프라 개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포괄적이고 환경문제를 감안한 성장경로는 아시아가 택해야 할 옳을 뿐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향후 과제 및 ADB의 현재 역할

현재의 경기 후퇴로 인해 빈곤, 불평등, 보건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인해 사회의 취약 계층은 영양이 부족한 저가의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빈곤층, 특히 임산부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ADB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2050년의 쌀 가격은 기후변화가 없는 상태에 비해 20%나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밀 가격은 16%, 옥수수 가격은 52% 이상 치솟을 전망이다. 최근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인구 및 수입 예측을 감안할 때 세계 식량 생산량이 수요 증가를 따라잡으려면 2030년까지 식량을 현재보다 40% 증산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70% 증산해야 한다.

아시아의 보건 문제는 가정 및 국가의 수입, 생산성, 형평성의 저해와 직결되어 있다. 아시아가 보건 분야에 쓰는 공공지출은 1인당 연 11달러로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낮을 뿐더러 필수적인 건강관리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상당부분의 보건관련 지출은 공정하지 못하며, 본인부담으로 인해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ADB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만 약 4천만명이 건강관련 필수 지출 때문에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관련 지출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도시

엘리트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할당되거나,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민간 영역의 무자격 의료인들이 빈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쓰이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경제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시장의 힘에 맞서서는 안 되며, 그 힘을 인정하고 이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규제없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자동조종장치에 내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빈곤을 감소시키는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ADB는 장기 전략에 맞추어 민간 부문의 참여, 지식 관리, 지역 협력 촉진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장기적 식량 안보 및 전반적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DB는 2007년 및 2008년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고하고, 가장 타격이 큰 국가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실시하여 재정 압박을 경감시키고, 식량 가격 설정과 보건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있다.

중기적으로, ADB의 식량 및 보건안보 지원은 농촌 지역 인프라, 지속가능한 토지 및 수자원 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경감 조치 등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농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량 교역 촉진 및 다국가관련 보건 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안정적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식량 공급 연쇄 네트워크의 발전 및 농업연구개발의 향상 등도 ADB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G20 국가의 지도자들은 — 이중 6 개국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는 바³— 식량 안보, 기초보건 및 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공공 투자를 지원하고 지속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 이중 세가지는 보건, 영양, 식량 접근성에 직접 연관되어 있고, 이는 다른 모든 목표들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의 달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식량 안보 및 보건체계 지원은 G20 국가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범유행성 인플루엔자, 다제내성결핵(MDR-TB), HIV/AIDS 등의 유행성 질병 발병률을 낮추고, 경제적, 자연적 충격으로부터 빈곤 계층을 보호하여 지역의 사회적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결론

이 글 전체의 주제는 상호의존성이다. 아시아가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성장 및 새천년개발목표는 이를 수 없다. 식량 및 보다 나은 공공보건에의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³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이는 식량 및 보건,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많은, 양질의 공적 투자 및 지역적 공공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G20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ADB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